



독일 슈바인푸르트의 베퍼트 생산성 향상 위해 스피드마스터 CD102-6LX UV에 투자

2012년 말 스피드마스터 XL 102-6LX UV에 투자를 한 베퍼트는 드루파2012 이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하이델베르크의 스피드마스터 CD 102-6LX UV에 재투자를 결정했다. 이로써 베퍼트는 슈바인푸르트에 위치한 인쇄사 중 가장 혁신적인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제공 | 한국하이델베르크

슈바인푸르트에 위치한 인쇄사인 베퍼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도입한 하이델베르크 스피드마스터 CD 102-6LX UV는 최신 업그레이드 기종으로 고품질의 인쇄가 가능하며 인쇄 사업 범위 확장에 용이하다. 베퍼트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노버츠 헨리치씨는 “이번에 도입한 인쇄기는 드루파2012 이후 새로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기존의 워크플로를 완벽하게 보완함과 동시에 생산력 증대가 가능하다. UV인쇄기에 투자함으로써 더 나은 품질 관리가 가능하게 됐을 뿐 아니라 고객들은 메탈효과와 부분 또는 전면 코팅 등 다양하고도 품격 높은 인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베퍼트는 드루파2012 이후 한층 업그레이드된 CD102-6LX UV 투자로 슈바인푸르트내의 온라인 인쇄사 중 유럽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온라인 인쇄 시장의 선두주자 자리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온라인 인쇄 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회사인 Xposeprint, Vip Print와 Buecher. vipprint Wepper는 온라인 시장에서 세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으며, 2012년에는 18%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자회사인 Xposeprint는 UV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디자인의 확대 고품질의 인쇄와 함께 효율적 생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해 졌다. 또한 독일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인쇄물을 생산하는 회사로 입지를 넓히고 있다.

UV, 인쇄즉시 바로 후가공 가능

UV 기술은 UV 건조장치를 사용하므로 즉시 건조되는 장점이 있어 베퍼트와 고객들에게 많은 이점을 주고 있다. UV인쇄잉크가 건조될 때 UV잉크의 광개시제가 UV광을 받아 활성화돼 단일의 모노머가 고분자

형태의 상태로 경화되는 화학적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UV인쇄는 종이는 물론 흡수가 잘되지 않는 비흡수 피인쇄체에도 즉시 건조가 가능하도록 해 인쇄가 끝난 후 바로 후가공을 할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또한, UV코팅을 함으로써 보호력 향상 및 인쇄물 굵힘에 대한 저항력과 함께 높은 광택과 좋은 질감의 인쇄물을 생산할 수 있다. 매우 효율적이고 세련된 브로슈어는 물론 전단지, 광고물 스티커, 플라 스틱, 금지, 은지 등의 비흡수 피인쇄체를 많이 사용하는 패키징 인쇄까지 가능해졌다.

완벽한 UV인쇄 생산체제를 갖춘 베퍼트

이번에 도입 결정을 한 하이델베르크 스피드마스터 CD 102-6LX UV는 베퍼트의 6번째 매업 오프셋 인쇄기다. 슈바인푸르트 지역의 생산공장을 확장해 도입함으로써 제1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간다. 생산을 시작함과 동시에 UV잉크 및 코팅기술에 적합한 관련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생산부서로 배정돼 완벽한 UV인쇄를 위한 생산체제를 갖췄다.

1839년 이래로 베퍼트는 인쇄 생산능력과 품질 측면에서의 대명사로 통한다. 혁신적인 생산 개발과 최첨단기술도입과 함께 인쇄시장에서 기존 소규모작업장에서 성공적인 인쇄사로 성장했다. Xposeprints, VIPprint, Buecher. vipprint의 브랜드와 함께 오늘날 베퍼트사는 고품질과 소규모 온라인 인쇄상품, 2만6천개 품목 이상의 광범위한 인쇄수요를 다룰 수 있는 인쇄사로 발전했다. 또한 베퍼트는 디자인부터 생산공정까지 통합 워크플로를 완벽하게 갖춰 효율적인 생산과 완벽한 유통망 관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쇄물의 입고에서부터 소비자에게 인쇄물을 완벽히 전달할 때까지 철저한 유통관리를 하고 있다.☞